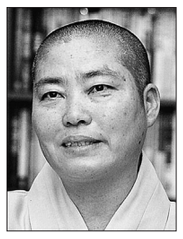
정년맞은 본각 스님 평생 연구 정수 전한다

11월 7일 퇴임 강연회 개최
'법계와 보현, 중도'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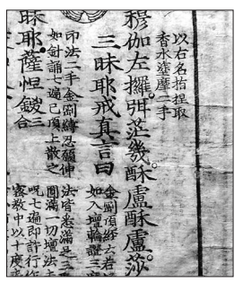
비구니계를 대표하는 강백 중 한 명인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사진〉이 정년 퇴임을 맞는다.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 대학원 학생회 · 총학생회는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 30분 김포 중앙승가대 강당에서 본각 스님 정년퇴임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본각 스님은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를 주제로, 화엄학 연구에 대한 정수를 대중에게 전한다.

본각 스님은 1955년 인천 부용암에서 육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7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스님은 1986년 일본 도쿄 릿쇼(立正)대학원에서 '화엄경의 연구-십회향품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2년 도쿄 고마자와(駒澤)대학원에서 화엄관법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성민 기자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등 서울시 유형문화재 등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중 일부.

서울 소재 사찰의 서적들이 잇달아 시지정 문화재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불교 간의사전인 '현수제승법수'가 10월 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 운가사(주지 여해)의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도 서울시 문화재자료(67호)로 함께 지정됐다.

법장사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수륙재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다.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470년(성종1)에 광평대군 부인 신 씨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했으며 보물 제1105호다. 법장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이보다 13년 뒤인 1483년(성종14) 3월 전라도 진안 성수산 중대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또한 법장사 '현수제승법수'는 당나라 현수 스님이 편찬한 간이 사전으로 중국에서 편찬돼 1572년 용천사에서 간행됐다.

운가사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나 임진왜란 중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과 용천사 판본으로는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신성민 기자

"흥천사 감로도, 한국 근대기 비추는 거울"

흥천사 · 동양미술사학회, 7일 학술대회 개최

일반적으로 감로탱화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수 만가지 인간 형상들이 설법을 듣는 형상을 하고 있다. 형식의 차이는 중단에 있지만, 하단부는 내용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하단부에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민중의 염원 등이 담겨있는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흥천사 감로도는 정말로 많은 특이점을 가진다. 1930년대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모던 라이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장은 10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모던 불화의 탄생'을 주제로 열린 흥천사 · 동양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 흥천사 감로도에 나타난 모던 라이프의 실상을 조명했다.

김 관장은 흥천사 감로도에 나타나는 중단과 하단의 도상을 분석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흥천사 감로는 특이하게 중단에 해당되는 천도재의 장면이 확대돼 수많은 구경꾼들이 운집한 가운데 야외공연처럼 진행된다. 재단에 놓인 지화는 전통적인 모란, 작약 등이 아닌 서구에서 사용하는 장미를 그려 넣었다.

김 관장은 "당시 장미는 '미'에 대한 절대적인 관념을 표상하는 것이였다"며 "감로도에 나타난 장미라는 모티프는 성화(聖花)로서 이미지보다는 당시 모던 풍조에 의해 각광받았던 문화적 기호로 새롭게 차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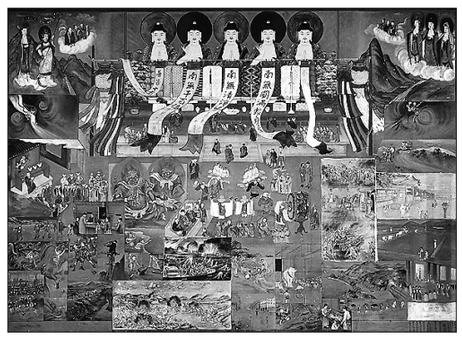
재단 장엄 옆에는 삼신번과 '시방세계 중생이 공양을 받으라'는 내용의 보고번,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천황의 축수를 바라는 상축번이 그려져 있다. 김 관장은 "천황 축수번은 당시 사회상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며, 일제강점기 사찰령에 의해 조선 불교계가 통제됐던 시대의 뼈아픈 소산"이라고 밝혔다.

소위 '모던 라이프'의 모습은 천도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재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면 양식 복장의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그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은 "의식에 집중한 채 숭배의 흔적을 보이는 사람과 구경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기는 이질적 요소가 이 불화가 가지는 색다른 점"이라며 "감로도 의식 장면에서 흰

양식 복장 · 전기공사 · 전쟁 등
전통 · 모던 경계 시대상 반영
전통과 신문물 대치 상황을
사진 구도 다큐 장면 표현해
'모던 불화' 탄생, 가치 높아

옷과 양복, 짚신과 구두, 땋은 머리와 단발 머리는 신문물 유입 후 전통과 근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뒤엉킨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여과없이 시각화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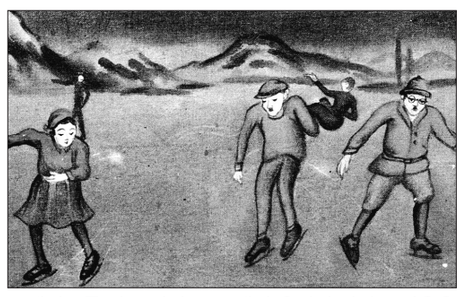
하단 장면에 펼쳐진 다큐멘터리식 편집과 내용도 흥천사 감로도에 나타난 근대적 요소이다. 종래의 불화에는 구름이나 수목 또는 산야 지형을 이용해 공간을 구획했지만, 흥천사 감로도는 사진 프레임을 덧댄 것 같이 나눠 내용을 전달했다. 여기에도 전통과 근대는 혼재되고 있다. 신식 재판과 구식 재판, 대장장이와 전기 수리공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도로공사와 자동차 여행, 서커스와 스케이트 등도 그려



서울 흥천사 감로도. 1939년 화승 문성과 병문에 의해 그려졌다. 현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 중이다.



재를 구경하는 아이들과 신사, 숙녀. 모두 양식 복장을 하고 있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근대의 유희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져 있다.

김 관장은 "흥천사 감로도는 전통불화의 틀을 깨고 신문물의 상징이었던 사진을 여러 컷으로 화면에 나열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시도했다"며 "이것은 당시 사진이 갖고 있던 명료한 사실성을 적용시킨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관장은 흥천사 감로도가 굴절됐던 근대의 사회상을 전해주는 거울과 같은 기록물이라고 봤다.

그는 "흥천사 감로도를 통해 사라져 가고 잊혀가는 근대의 여러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며 "흥천사 감로도는 다섯 여래의 강림과 천도재를 통한 해탈이라는 종교적 메시지와 함께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경성의 모던 문화가 어떻게 보수적인 종교화까지 확장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사회상을 형성하던 '모던'이미지가 '감로도'의 형식을 빌려 독특한 다큐형식으로 형상화된 작품인 만큼 오늘날의 열린 문화예술적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앞서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일본의 만행을 그린 장면들과 일제 천황을 적은 번을 통해서 그들이 사후에나마 참회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화승의 발원을 읽을 수 있다"며 "흥천사 감로도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돼 암울했던 우리의 식민지 시대상을 그림으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근대 역사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감로도 도상의 기원과 전개-연구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를, 前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이 '의례의 관점에서 감로도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日 행기대사 49院 '미륵상생경' 영향"

중앙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 〈불교사연구〉서 논문 발표

'49'는 미륵 관련 경전서 기술 행기의 보살행은 유가론 바탕



일본 동대사역 광장 분수에 세워진 행기 대사의 동상.

일본에서 문수보살의 화현으로 추앙받는 백제계 유민의 자손 행기 대사가 건립한 49원(院)이 〈미륵상생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조교수 오인 스님은 한국불교사학회가 간행하는 〈한국불교사연구〉 9호에 발표한 '백제계 행기의 미륵정토에 대한 고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라 시대 활동한 행기 스님(668~748)은 백제계 유민의 후손으로 15세에 출가해 민중교화에 뜻을 두고 교량 건설, 보시원 설립 등을 추진해 어려웠던 사람들을 보살폈다. 당시 일본은 세금과 부역으로 민중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행기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를 '행기집단'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행기집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717년 '승니령'을 내려 승려의 탁발을 금지시켜 행기 스님을 탄압한다. 하지만 행기 스님은 꺾이지 않았다. 결국 성무천황은 행기 스님을 동대사 건립을 위한 대승정으로 임명하기까지 이른다.

오인 스님은 행기 스님이 전국에 건립했던 49원을 주목했다. 행기의 사료에는 미륵정토와 관련한 기록이 없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그의 생애가 사회사업에 치중돼 도솔왕생신앙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적으로 49원 건립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이하 미륵상생경)에는 "마니 보주의 광명이 공중을 선회하면서 49중의 미묘한 보배 궁전을 변화해 만들었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대승본생지관경〉에는 "도솔천의 여의전은 49중으로 이뤄져 있다"고 쓰였다. 〈화엄경〉에도 미륵의 주처가 묘사됐지만, 여기에는 '49'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인 스님은 "행기의 49원은 〈미륵상생경〉의 영향이며, 화엄사상과는 무관하다"며 "790년에 번역된 〈대승본생지관경〉 역시 행기의 입적 후 한역돼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행기의 보살행의 근원 〈유가사지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인 스님은 "행기집단은 걸식을 기본으로 했는데, 이는 중생의 고난을 해소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찾아서 구해 줘야 한다는 〈유가사지론〉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굴산사지 조사 성과와 보존 · 정비 방향 모색

중원문화재硏, 13일 학술세미나

한국 구산선문 중 하나인 굴산사지의 발굴 성과와 향후 보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박종익)는 10월 13일 강릉시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강릉 굴산사지 발굴조사와 보존 · 정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창석 강원대 교수가 굴산사가 있었던 고대도시 명주(溟州, 현재 강릉)의 역사적 위치를 살펴봤으며,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굴산문과 굴산사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했다.

또한 문옥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강릉 굴산사지의 조사 성과를 살펴보고, 엄기표 단국대 교수는 굴산사지를 비롯한 강원 영동지역 불교조각의 특징을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0월 31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